



◇지난 11월15일부터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도로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봉산 원각사 인근에서 베어낸 수령 20~30년의 소나무들, 포크레인에 의해 파헤쳐진 북한산 국립공원내 산기슭이 붉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11월19일 회룡사 주지 성건스님과 미가사 주지 항산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과 시민연대회원 50여명은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 '국립공원'에 대한 태러를 상징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거세게 항의했다.

파헤쳐진 산기슭... "북한산은 절규한다"

교계·환경단체 관통도로 반대운동 거세

"대산소산 산양대신, 대악소악 산양대신 상방하방 산양대신, 흥산길산 산양대신"

11월 28일 오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을대리 도봉산 원각사 계곡 입구의 북한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 산 곳곳에는 붉은 깃발들이 꽃히고 마구 파헤쳐진 산기슭은 붉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포크레인에 의해 국립공원임을 알리는 표식은 벽없이 쓰러지고, 지름이 30cm수평 20~30cm가 넘는 소나무, 잣나무들도 질러나갔으며, 거울처럼 맑은 물이 흐르면 계곡도 공사 진흙처럼 탁하게 되어 흙으로 덮여있었다.

산 곳곳에 붉은 깃발

공사현장에 자리잡은 비닐로 만든 작은 법당에서는 10여명의 스님과 20여명의 불자들이 사시 예불을 마친 후 <산양경>을 외우며 산신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글까지 다치지 않고, 고속도로 노선이 의정부 외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자"는 간절한 원을 담은 기도는 엄숙하다

4일 조계사에서 시민종교연대 발족 3천여명 참석 '결의대회'

건교부 "노선변경 7천억 추가...공사강행"

못해 비장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불교대책위와 시민연대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LG건설 외 9개사 민간전소사업)가 지난 11월 15일부터 도로 건설을 위해 북한산 양주군 장흥면-의정부시 호원동 구간 벌채에 들어가자, 20일부터 이곳 사패산 대표소 옆에 간이 법당을 세우고 천막농성에 들어가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20일 벌목 인부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육탄저지에 나선 회룡사 주지 성건스님은 "다른 나라는 동산객이 동산로도 못 벗어나게 관리하는데, 세상에 국립공원을 파괴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항

의했고 한 70대 보살은 "나무를 베는니 차라리 내 몸동아리를 베어라"며 인부들이 갖고 있던 전기톱을 빼앗다가 결국 심신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예산 2조3천3백84억원(국고 9천6백68억원, 민자 1조4천16억원)으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정리까지 36.3km(국립공원 통과길이 4.6km) 터널 4.1km,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며, 현재 구리→하남→안양→부천→일산까지 놓여져 있다.

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북한산 소재 30개 사찰이 직간접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때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건설 논란지역



에 관련 사찰의 스님들은 지난 10월 24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관통도로건설 저지를 위한 불교대책위'를 결성하고 의정부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0여 사찰 피해예상

불교대책위는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주변 200m이내에 17개 사찰이 소재하는 등 30여개 사찰의 피해가 예상된다. 2006년 6월 29일까지 공사차량의 출입으로 면지와 소음, 터널공사시 발파에 의한 진동 및 건물 파손, 공사로 인한 신도 통행 불편 등에 의한 수행환경의 파괴는 들

론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국립공원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사찰의 예상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진동 피해(충추원각사, 지하수맥 변화(회룡사), 소음 및 비산먼지(현사, 흥법사, 원각사, 현

결성, 발족식을 갖고 조계사에서 종교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후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민종교연대는 11월 29일 서울 북부지역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이달 중에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감사 청구, 건교부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종교인 선언,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대규모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해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환경단체 주장대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7천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산림훼손 면적이 60%가량 더 증가하며 외곽순환도로의 본래 기능도 떨어진다며 공사강행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최후의 보루'로서 그 안의 희귀 동식물 및 문화사적 등을 보호하는 생태계 보전기능과 온 국민의 자연 체험과 생태관광 및 휴양, 정서 함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소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개발 필요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과 용도지구 변경, 민원해소용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신과 피해의식만을 키워왔다. 이제 국립공원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상황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은 주축 사무국장은 "국립공원 관리에 정부부처가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임해서는 안되며, 국립공원지정관리 운영계획 등의 기획업무는 국가가 직접 총괄하는 '국립공원 관리 전문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개념의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자연공원법을 대신하는 '국립공원 관리 근거법' 제정을 촉구했다.

1300만 수도권 시민의 허파인 북한산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지금 당장 국립공원 이념과 기능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글=김재경 기자 gjm@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ego@buddhapa.com

"정부 나서 북한산 심장 뚫겠다니..."

인터뷰 시민종교연대 공동대표 일면스님

"시민들은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풀 한포기 돌 하나를 채취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규칙들을 기꺼이 지킨 덕분에, 조금씩 제모습을 찾는 북한산을 대견스레 바라보고 있는데, 터널을 뚫고 하루 14만대의 자동차를 끌어들이다니요?"

4일 조계사에서 출범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종교연대 공동대표인 일면스님(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은 "날로 비대해져 가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유일한 푸른 허파인 북한산을 살리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건설시 30여 곳의 사찰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

은 처치하고서라도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일면스님은 "지맥을 끊기 위해 일제가 북한산에 박은 쇠파를 민간에서 찾아내고 있는 판에, 정부가 나서 북한산의 심장을 뚫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지난 10월 24일 환경단체인 '녹색미래' 공동대표에 추대



되기도 한 일면스님은 "생명 존중의 종교인 불교가 환경운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자 모두가 환경보살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11월20일부터 원각사 계곡 입구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불교대책위 소속 스님과 불자들은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산신기도를 올리며 '북한산 살리기'를 발원하고 있다.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월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1-8871 792-8867~8